

본 매체에 게재되는 모든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글쓰기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투자자분들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 시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매체에 게시되는 자료는 어떤 상황에서도 독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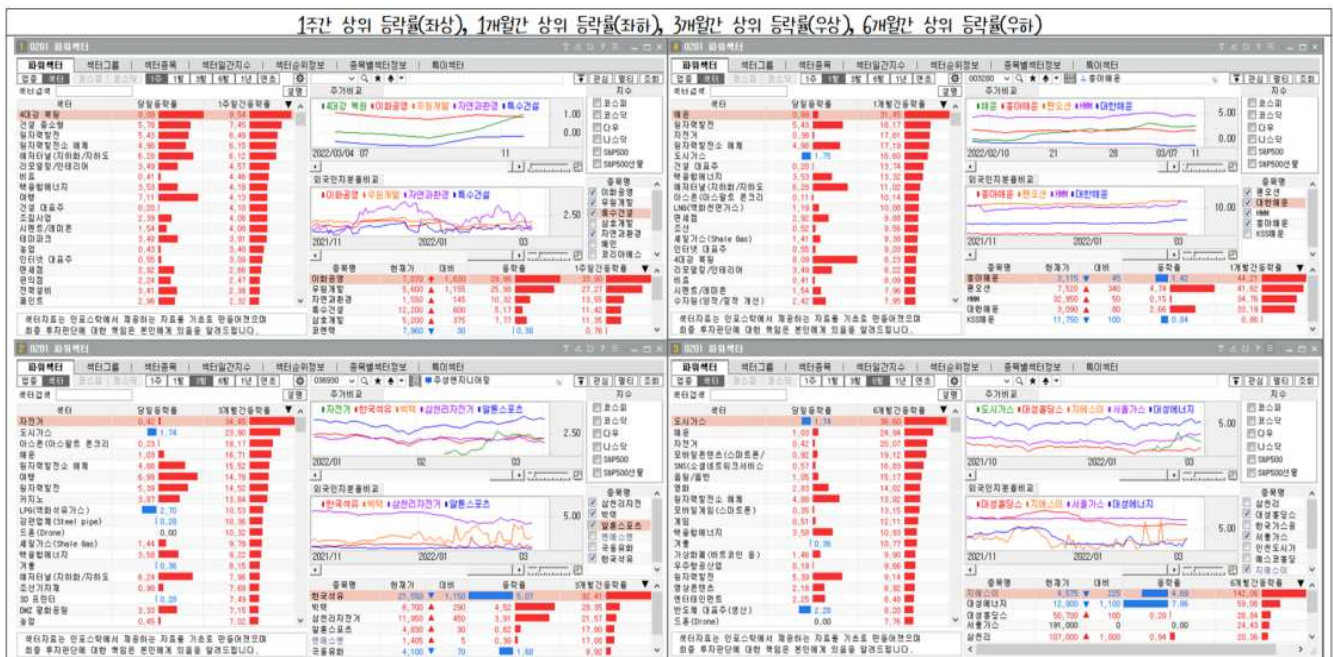
심심한 Insight: 주도섹터 점검, 현 시황과 과거를 Overlapping해서...

[선 3줄 요약]

1. 전문가들도 주가지수의 향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횡보가 가장 설득력있어 보입니다.
2. 횡보장에선 주도 섹터가 등장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3. 주도 섹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직 정답은 모르지만, 과거를 비추어 찾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Chart and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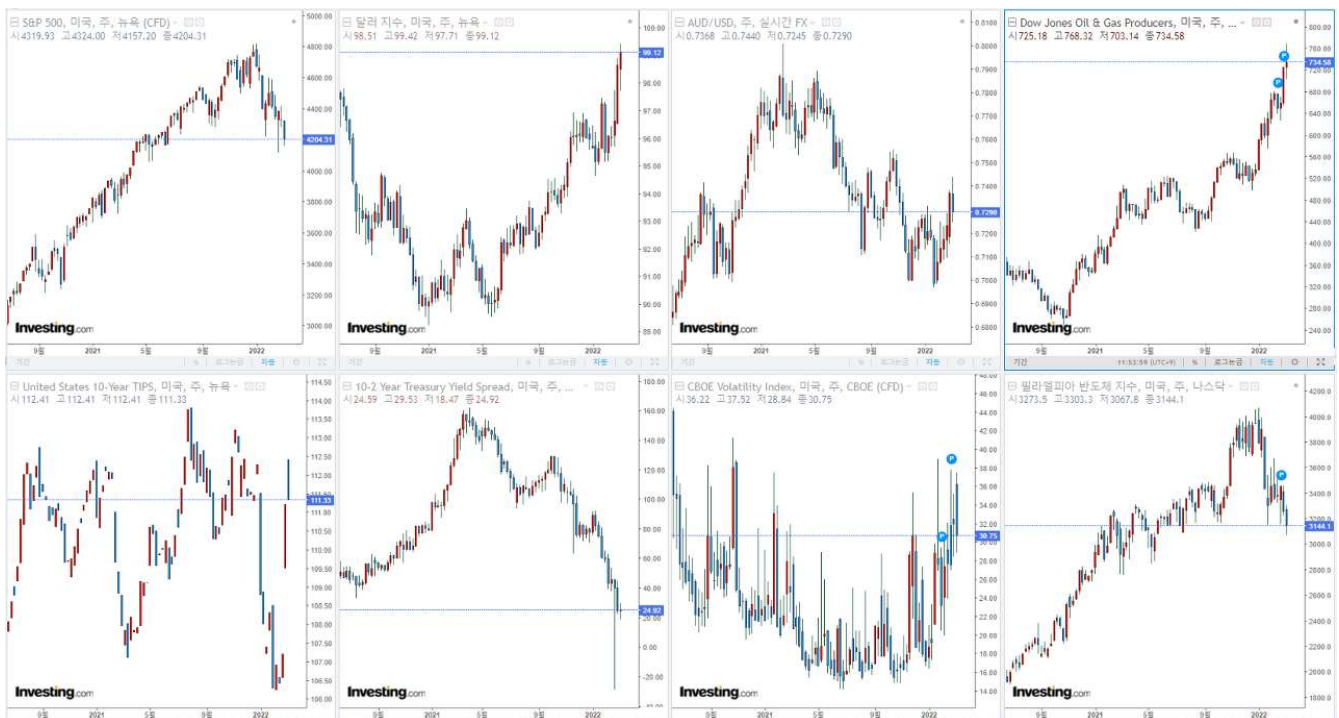
- 3월 2주의 국내 증시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상승률 상위 섹터



- 제 기준에서 주가지수는 이제 막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제 생각입니다) 아직은 뚜렷하게 보이는 주도 섹터 후보는 안 보입니다.
- 4대강은 짧게 지나갈 테마고,
- 건설은 정책 모멘텀과 저평가가 있는데 주목 같지는 모르겠고,
- 원자력은 조금 더 확인해보고 싶고,

- 건자재와 비료/사료는 원자재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클 것 같고,
- 조선...? 조선? 일단 체크,
- 여행하고 카지노도 리오프닝 모멘텀으로 1~2개 분기 정도는 모르겠지만 숫자가 안 나오고,
- 게임은 금리인상기에 멀티플이 부담이고,
- 우주항공산업...? 방산...? 이것도 일단 체크,
- 엔터... 엔터... 먹을 게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공부가 부족하고... 일단 체크,
- 반도체는 언제나 관심이고...

- 미국 시장 주요 관심 차트(18개월 주봉)



- 변동성이 극심했던 한 주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결국 우측 상단에 가 있지만 엄청 멀미나는 무빙이 있었어요. 러-우 위기 발 원자재 쇼티지 우려에 대한 호주의 대체 가능성이 주목 받으면서 호주 달러가 같이 힘을 받았습니다.
- 채권 트레이더들은 연준에 놀라 던지던 TIPS를 러-우 위기로 다시 할레벌떡 주워 담았는데 장단기금리차, VIX랑 오버랩해서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 할 정도로 패닉했던 시기가 차트의 꼬리와 봉 길기로 엇볼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지수가 연중 최고점을 연달아 경신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카나리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나라 주가지수하고 거의 비슷해 보일 정도로 심하게 부러져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짚어본 지표들로 봤을 때, 앞으로 해결될지 확실하기 힘든 불확실성(러-우 위기, 에너지 쇼티지, 곡물 대란)이 있고 다가오는게 확실시 되는 악재들(금리 인상, QT)도 있어요. 시장은 이런 리스크들을 모두 반영하고 있을까요? 저는 조금 더 반영될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요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성장 중이고 리오프

님과 함께 오랜 기간 몸츠려 있던 서비스 시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 상기한 시황을 고려하면 확보장을 예상하는 건 나름 앞뒤가 맞고, 따라서 리스크와 수익을 적당히 Trade-off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보장을 전제로 한다면, 과거의 확보장에서 어땠는지를 봐두면 앞으로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겁니다.

- 2010 ~ 2022년 국내 주요 산업 및 섹터 월봉



- 잘 보면 2010~12년에 차화정, 2015~16년에 화장품과 중국 소비재, 2018년에 반도체와 바이오가 주도 섹터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스토리에 따라 주가가 오른 뒤에 실적 성장이 둔화되면서 잠잠해지는 역사가 반복되었어요.
- 지금부터 앞으로 1~3년 정도의 기간에 성장이 확실시 되는 산업을 떠오르는 데로 적어보자면 2차전지, 에너지 전환, 메타버스와 컴퓨팅 하드웨어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다들 시세를 한번씩 뿔었던 섹터/테마 들이라 선뜻 손이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반도체는 경기가 죽지만 않는다면 어떤 산업에도 필요한,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산업임에는 틀림없고 한국 경제와 증시에 반도체는 언제나 뜨거운 화두인 만큼 이제 다시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DRAM도 DDR4에서 DDR5로의 전환기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만큼 체크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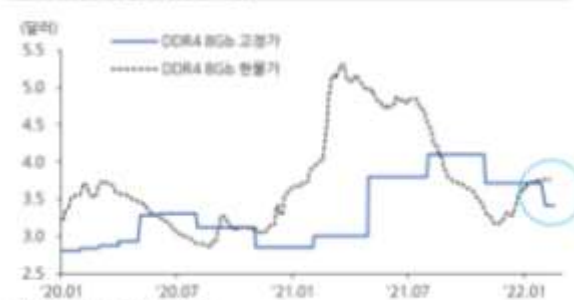
- 국내 반도체 수출 추이 및 글로벌 DDR4 8gb 가격 추이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산업자원부, 유진투자증권

DDR4 8Gb 현물가 vs. 고정가



자료: Trendforce, 유진투자증권

출처: ZK20209, 이승우 애널리스트, 2022년 반도체 산업 전망 Revision 유진투자증권

- 반도체 수출액은 양호하고 YoY 성장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DDR4 현물가는 고정가를 제쳤구요. DDR5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런 현물가 움직임은 특기할만 합니다.
-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에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거나 슈퍼사이클이라던가 이런 예단은 무리지만, 공부해 볼 만한 시기라고 보여요.
- 반도체 생산 쪽에 진입은 아직은 꺼려지지만 캐파 증설에 기대감으로 장비 관련 종목은 지금이 가장 들어가기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하고 아이디어는 떠오르는데 개별 종목 단에서 밸류 평가를 해봐야겠죠.

[Opinion]

- 아직 이거다 싶은 건 안보이지만, 계속해서 공부하고 찾고 있습니다.
- 단기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 짧게 짧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보다는,
- 횡보장에서 큰 수익을 주는 주도 섹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피드백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